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긴급조치-악법도 법인가

1978년 6월 27 '우리의 교육지표' 선언



신 일 섭 전남대 사학과 75학번, 광주 YMCA 사회교육부 간사·이사, 일본 동경대학교 중앙문화연구소 연구원,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현)

## 1970년대의 대학 풍경

대학은 각각 그 시대의 모습을 반영한다. 1970년대 어둡고 음산했던 한국의 대학은 바로 그 시대의 지화상이었다. 혁명과 반동의 목소리가 예리하게 부딪치고, 저항과 투쟁에 대한 탄압과 투옥의 긴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은 대학사회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자유와 진보, 개혁과 창조는 젊은 대학생들의 원초적인 본능이다. 한없이 젊음을 구가하면서 전진해야 할 대학생들은 당시 군사독재의 암울한 마수에 의해 좌절당하고 압살당했다. 젊은이들은 가슴 속에 깊은 내용을 앓으면서 안으로만 삭혀야 했었다.

1970년대 이 땅에는 소위 '유신'이라는 이름 아래 살벌한 긴급조치법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깡마른 음성과 감정 없는 모습이 한반도 남쪽 강산을 지배한 '긴조(긴급조치)시대'였다. 긴급조치법은 박대통령의 지배형태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1975년 5월 13일 당시 선포되었던 긴급조치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하거나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하는 행위나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 비판하거나 학생들의 반정부 데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냈던 시대-이것은 왕조시대나 있을 법한 일이었다. 왕조시대에도 이처럼 무자비하게 백성을 다스렸다면 아마 그는 악명 높은 폭군으로 기록되었으리라.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법(1호부터 9호까지)에 의해 1970년대 국민의 자유는 완전히 압살당했다. 이 조치는 1979년 10.26 사태로 해제되기까지 약 6년 가까이 수많은 학생, 시민, 민주인사들을 감옥으로 몰아넣었다.

## 의식 운동의 길 - <전환시대의 논리>

10월 유신이라는 어두운 시대,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은 높은 이상의 날개를 펴지도 못하고 추락, 좌절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무자비한 그들의 군화발 속에 젊은 청춘의 아름다움을 짓밟혀야 했다. 젊음의 이상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경찰 정보원들의 눈을 피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울부짖으며 통음의 밤으로 하얗게 지새야 했던 걱정과 분노의 세월들이었다. 그 폭정의 한 가운데서 나도 동지들의 뒤를 따라 작은 목소리라도 외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시대적 사명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 당시 읽었던 책 가운데 E.H.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 E. Fromm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로부터 시작하여 강만길 교수의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C.W. Mills의 <들어라, 양키들아!(Listen, Yankee!)>, 신동엽 시인의 <신동엽전집>, 조용범 교수의 <후진국 경제론> 등 아직도 나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대학 시절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도 왕성했지만 또한 엄청나게 불어나는 독서량은 때때로 혼란을 주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결코 쉬운 책들은 아니었다. 그 책들을 읽어가면서 메모하고 토론의 주제들을 골라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진보적인 개혁시상과 사회주의 경향의 서적들을 보다 많이 읽기 위해 혼자서 열심히 일본어공부를 했던 기억도 새롭다. 좀 색다른 경향의 일본서적이 있으면 정말 호기심을 느꼈던 때였다. 되돌아보면 시대의 답답함과 울분을 책을 통해서 발산하고 그 해결점을 찾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게 있어서 현실인식의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준 것은 당시 반체제

지식인으로 유명하였던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었다. 대학 1학년 여름방학 때 도서관에서 <전환시대의 논리>를 읽으면서 내 스스로 기존에 가졌던 사고방식의 틀을 깨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 20여 년 가까이 교육받고 세뇌당해 온 냉전논리와 사상을 깨고 나는 새로운 세계관의 진실과 그 의미를 맛보기 시작했다. 베트남전쟁의 실상과 본질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언론인의 감각과 필치로 예리하게 파헤쳤던 그 책은 당시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정반대의 진실에 나를 부딪히게 하면서 하나의 큰 충격으로 와 닿았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베트남에 파병되었다던 우리 국군 맹호부대나 비둘기부대가 한날 미국의 용병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베트남 전지를 향해 떠나던 맹호부대를 위하여 선생님이 가르쳐 주던 대로 목이 터져라 얼마나 크게 응원가를 불러댔던가. 아직도 그 노래가사나 곡이 줄줄 외어진다. 당시 냉전시대의 정치권력은 초등학교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온 국민을 세뇌시키고 조작했던 것이다. <전환시대의 논리>는 비록 단편적이지만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과 중국공산혁명의 이상 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나는 세상을 보는 시각과 관점, 해석을 점점 달리하기 시작했다.

### 민주 투쟁의 현장에서

대학 3학년, 젊은 날의 긴 사색과 방황과 분노도 어느덧 성숙해지기 시작했다. 서클 선배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맺어주고 이어주며 내일을 개척하고 준비해야 할 때였다.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든 것이냐, 아니면 학업을 마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할 것이냐 하는 두 갈래 선택의 갈림길이었다. 무척 방황을 했다. 때로는 개인적인 고민과 사회적인 갈등의 연속이었다. 단말마적인 독재권력의 탄압으로 당시 학생운동은 침체기에 빠져 있었고, 어느 곳에 선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누가 저 어둠의 침묵을 깰 것인가. 결국 사회는 우리를 밖으로 몰아세웠다.

1978년 6월 27일, 엄혹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전남대학교에서 소위 6.27 교육지표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은 당시 연세대학교 성래운교수(작고)와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송기숙 교수, 사학과 이홍길, 이석연 이상식 교수,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홍승

기, 김두진 교수 등 11분이 유신독재교육을 비판하며 반유신교육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 선언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천황식 교육칙어를 본받은 당시 국민교육헌장을 비판하고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당시 유신독재세력은 자신을 비판하는 어떠한 세력도 허용하지 않았다. 학자적 양심에 따라 교육지표를 선언했던 교수들은 사건 직후 강제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긴급조치에 의해 투옥되거나 강제 해직을 당해야 했다.

교수님들이 정보기관에 연행되었다는 사실이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전 대학에 퍼지면서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우리들을 가르치던 교수님들의 양심적인 교육선언을 듣고 학생들은 더이상 참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섰다. 바로 어제까지 강단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던 교수님들이 선언문 때문에 영어의 몸이 되거나 학교를 떠나게 된 사실을 학생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동안 서클에서 혹은 비공식적인 지하모임에서 소위 의식화공부를 해왔던 우리들이 의기투합되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도 그 학생들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참을 수 없다고 통분하면서 학교 근처 허름한 막걸리집에 비밀리 모여 6월 29일의 거사를 모의했다. 모임을 주선했던 노준현 학생(공과대학, 2000년 7월 작고)은 이미 학교 밖의 선배들과 연계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6.27 양심교수 연행에 대한 전남대 민주학생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6월 29일 오전 11시 당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노준현 학생에 의해 발표되었다. 당시 선언문의 일부를 소개해 보면 "그동안 침묵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우리의 스승들이 민주교육선언에 일어난 쾌거는 암흑을 깨치고자 일어난 자각이요 양심의 회복이었다. (중략) 우리들 젊음의 터전 전남대학교는 정보기관의 발바닥 밑에 깔려 있으며 전국민적 신망을 잃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일어설 사람은 없다. 우리들의 흘린 피가 아니고는 없다."라고 했다. 당시 학생들은 교수님들의 교육지표 선언을, 암흑을 깨치고 일어서는 자각이자 양심의 회복이라고 했다. 그 만큼 학생들은 정의와 진실에 목말라 했으며 이것을 위해 흔쾌히 희생할 각오가 있었다.

### 소크라테스의 독배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 선언문이 발표되고 각 단과대학에서 그 유인물이 살포되자 학생

들은 도서관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도서관 2층 열람실에 가득히 앉아 있는 학생들을 향해 유인물을 뿌리며 외치기 시작했다. “정의의 학도여, 일어나라” “우리의 승을 석방하라” 등등. 얼마 지나지 않아 데모 노래였던 ‘정의가’ ‘아침이슬’ ‘투사의 노래’ 등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고 학생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 농성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6·29 시위를 주동했던 우리 14명의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연행되고 구속되었으며 그 길로 학교에서 제적되었다. 모두 긴급조치9호 위반이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데모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구속하고 학교에서 제적시키는 당시의 사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만큼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사회였다.

나도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고 생전 처음 감옥소를 구경하게 되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출옥했던 나는 위험인물로 표적이 되어 다음해인 1979년 5월 다시 정보기관에 의해 강제 입영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입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위 남민전 사건과 10.26 박정희 암살사건이 발생했고 이어 그 다음해인 1980년 5월에는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했다. 6.27 교육지표사건과 6·29 전남대 민주 학생선언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유신독재정권의 폭압을 깨뜨린 신호탄이자 전초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26 당시 나는 전방에서 작대기 하나 달고 한창 신병생활로 정신없던 시절이었다. 10월 27일 새벽 비상명령 속에 눈을 비비며 우리는 완전무장하고 각 참호에 배치되었다. 순간 전쟁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다. 동이 트고 아침 식사시간 무렵 예야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 소식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을 수 있었다.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다. 독재자의 죽음 - 나는 그것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나는 전우들의 눈을 피해 혼자서 PX로 달려가 음료수로 목을 적시며 속으로 쾌거를 부르짖었다.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1982년 3월 대학의 품안에 다시 들어오기까지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악법도 법이라고 읊조리면서 독배를 마셔야 했던 소크라테스의 아픔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1970년대 대학 시절, 그것은 내게 있어서 어둡고 쓸쓸했던 기억의 저편으로 남아 있다.



유인택 서울대 제약학과 75학번.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주)원시대 대표이사(현), (주)채플린엔터테인먼트 대표(현), (사)문화산업포럼 공동대표(현)

**만다라**. 아무 사회적 의식없이 세상과 등지고 밤무대를 누비는 부류쯤으로 인식되는 게 보통이다. 나는 1978년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감옥에 갈 때 이념 서클 소속의 운동권이 아니라 자칭 ‘만다라’였다.

1975년 누구나 부러워하는 서울대학생이 되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매일 데모와 최류탄, 그리고 휴교... 그리고 곧이어 긴급조치9호 발동!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험악한 학내 분위기 속에 상아탑에 안주하지 못해 방황하던 나는 신입생 시절을 마치고 2학년 때 약대에 진입한다.

등교길 캠퍼스 잔디밭에 진을 치고 있는 전경들, 건물에 들어서면서 수위실에서 마주치는 사복 형사, 패배감에 젖은 학우들, 이러저런 꼴이 모두 보기 싫어 술로 세월을 보내다 우연히 약대 연극공연에 참가하게 되었다. 곧이어 나는 총연극회 주최의 마당극 ‘허생전’ (이상우 연출/류인렬 기획)에 출연하였고, 그러면서 탈춤을 배웠다. 당시 탈춤과 연극을 가르쳤던 분들이 ‘한두레’라고 하는 연희 단체 멤버들과 연극회 선배들이었다. 그때 만난 분들이 교주(?) 채희완(현 부산대 무용과 교수)을 위시하여 김지하, 황석영, 정한룡, 홍세화, 이애주, 임진택,